

나주시, 강소특구 2단계 사업 확정...“에너지 기술 육성”

2030년까지 국비 등 총사업비 200억 투입
친환경 태양광·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윤병태 시장 “자생형 생태계 조성 박차”

나주시가 에너지산업에 특화된 기업 유치, 연구 및 기술개발 단지 조성을 위해 역점 추진해온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육성사업 2단계로 진입한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소특구 육성사업 종합평가에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해온 1단계 사업 성과와 향후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강소특구 2단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2단계 사업 확정에 따라 나주시는 강소특구 특화 분야인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 발전 및 연계

안정화,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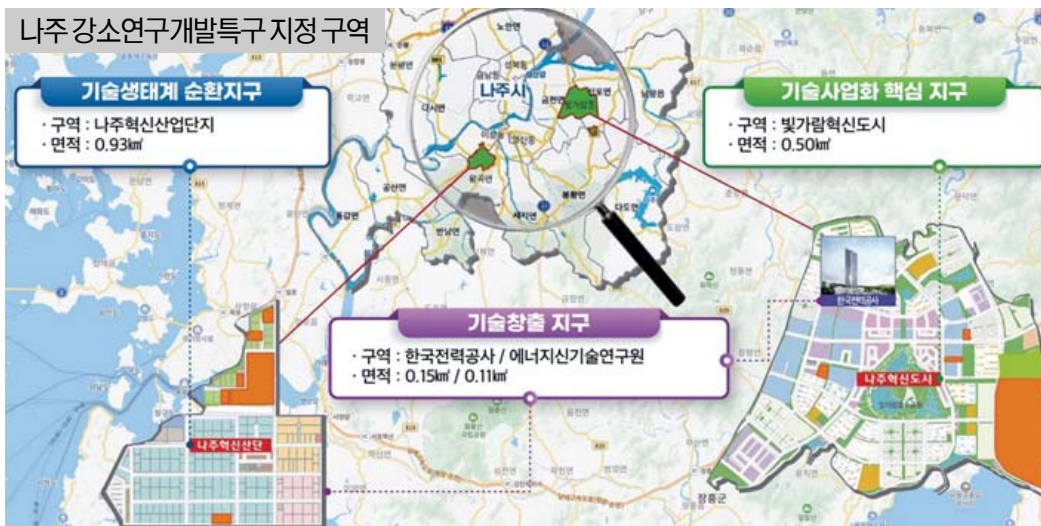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지역에 위치한 기술 핵심기관을 거점 삼아 인근 지역을 소규모·고밀도 연구개발(R&D) 배후 공간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기술 핵심 기관으로, 나주 혁신산단 및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구개발 배후 공간으로 육성해왔다.

지난 4년간 1단계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143건’, ‘연구소와 기업 24개 설립 및 창업 60건’, ‘신규 일자리 471개 창출’ 등의 실적을 달성했다.

여기에 한국전력 보유 기술에 기반한 태양광, 신재생 O&M(운영·유지보수), 에너지저장 수



요 기업 맞춤형 기술이전이 활발해지면서 3천500억원 규모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등 전국 14개 강소특구 중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단계 사업은 보다 실질적인 기술 실증과 기업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나주시는 지역산업 연계 및 한전 R&D 마

스터플랜, 탄소중립 기술 전력을 토대로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 기술 발전 및 연계 안정화,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에너지 전환 시대 필수적인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실제 기술을 적용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초기 창업을 넘어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술 실증 구축 체계 마련과 에너지 특화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의 연계 R&D,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에도 힘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강소특구 2단계 육성사업을 통해 기술 공급기관 중심의 전 단계 사업에서 나아가 전국 강소특구 간 협력과 지역 에너지 산업 기반으로 자생형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완도, 군내지구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본격 추진

450억 투입...2027년 준공 목표

관로 개량·배수 펌프장 신설 등

완도군이 국지성 집중 호우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완도읍 군내리 일원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군내지구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침수 예방 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에 하수도 정비 등

을 추진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군내지구는 만조 시 배수 관로를 통해 바닷물이 역류하며 집중 호우와 태풍 내습 등으로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총 450억원(국비 32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관로 개량(3km), 배수 펌프장 1개소 신설 등을 이달 착공한다.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0억

원을 투입, 가용지구를 대상으로 배수 펌프장 설치 등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져 완도읍은 상수 침수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사고 및 군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사업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제5회 유달산 치유음악회가 지난 7일 유달산 무장에 나눔길에서 열렸다.

〈목포시 제공〉

목포 유달산 ‘치유음악회’ 성료

치유 힐링 시간 제공

목포시는 8일 “전날 목포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이고 트래킹 코스 명소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유달산에서 제5회 유달산 치유음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달산이 다도해를 바라보는 산, 등산코스·둘레길 트래킹 코스 개념에서 잠시 벗어나 치유의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목포에서는 최초로 숲 속 치유 음악회를

개최한 지 어느덧 5회를 맞이했다.

치유음악회는 ‘유달산 무장에 나눔길’(유달산 일주도로 목포해인영고 뒤 건너편 숲 속)에서 입장료 무료로 개최됐으며, 이난영&김시스터즈 박물관 주최, 전남도교육청 후원으로 개최됐다.

잠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숲의 향기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특히 도시생활의 소리에서 메마른 내면의 감성을 적셔주는 편백 숲

속의 세계를 공감하고자 추진됐다.

어느덧 5회를 맞이해 많은 시민들이 꾸준하게 찾는 음악회로 자리 잡아 관심 있는 음악회로 발전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덕인중 학생 40여명의 합창단, 전자 바이올린, 오카리나 공연, 시가 있는 노래 등 자연과 어울리는 서정적인 힐링의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자연과 잘 어울리는 핸드판 공연이 지난해에 이어 목포에서는 두 번째로 공연되면서 폐품을 활용해 만든 첼로 악기인 유니컬 플라스틱 첼로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독특한 공연이 연출됐다. /목포=정해선 기자

‘2035 영광군 관리계획 수립’ 공청회 연다

11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서

영광군은 8일 “오는 11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군의 장기발전구상의 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광군 전역을 대상으로 2036년까지 개발 수요에 맞는 적정 용지 확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정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투자계획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군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 과업에는 ▲개발 완료지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재검토 ▲자연

취락지구 확대 및 신규 지정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등이 포함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은 향후 10년간 영광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 후 주민 열람과 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남도에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강진군, 강진동초 인근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생태 감수성 향상

강진군은 “최근 미세먼지 차단 및 녹색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한 ‘강진동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녹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4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강진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학교 담장 주변에 교목류 3천12주, 초화 및 지피류 2천436본을 식재하고 그린울타리 및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학교 진입로 구간에는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 반영해 아이들의 동선과 안전을 고려한 녹지설계를 적용했다.

이번 그린숲 조성으로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돼 학교 인근 주민



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작은 숲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군 산림과장은 “자녀안심그린숲은 단순한 나무심기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생활권 중심으로 자녀안심그린숲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무안, 남악·오룡 순환 공영버스 333번 신규 개통

내일부터 일 20회·배차간격 30분

무안군은 8일 “오는 10일부터 남악·오룡 지역을 순환하는 공영버스 333번 신규 노선을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333번 신규 노선은 남악지구와 오룡1·2지구를 연결하는 순환 노선으로, 목포 간선버스(1·2·3번)가 오룡2지구를 운행하지 않는 교통 공백을 해소해 군민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33번 노선은 오룡차고지를 기종점으로 ▲오룡2지구 신규 아파트 단지(시티프라디움, 푸르

지오 파르세나,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힐스테이트) ▲남악 지역 주요 교육시설(오룡중, 남악고, 애향중, 목포대 평생교육원, 전남도립도서관) ▲남악모아엘가 ▲남악시장 ▲남악복합주민센터 등 남악신도시 주요 지점을 순환한다.

노선은 일 20회 운영되며 배차간격은 약 30분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존 100번 좌석버스와 공공형버스 50번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고령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노선은 군민들의 실제 이동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암, 지역맞춤형 ‘밥맛 좋은 쌀’ 품종 육종

시험구 조성...병충해 대응 등 검정

영암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벼 시험포장에서 손모내기 실시하고, 밥맛 좋은 쌀 품종의 생산력 검정 예비시험을 위한 시험구 조성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영암쌀 품종육종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시험구 조성은 지역에 최적화된 고품질 쌀 품종 개발을 위한 첫걸음이다.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품종육종사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흰쌀마름병 등 병해충에 강하며 지역환경에 잘 맞는 고유 품종 개발에 나섰다.

영암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험구에서는 지난해 선발된 우량계통 11개체의 수량성과 재배 적응성 등을 검정한다.

영암군 품종육종사업은 ▲생산력검정 분시험 ▲지역 적응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30년 품종 등록과 현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밥맛 좋고 병해충에 강한 영암쌀은 지역 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라며 “행정·기술적 지원으로 전국에서 인정받는 영암쌀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